

# 광주·전남 지역민 “대통령 파면으로 국정 정상화”

### 5·18광장 ‘한 줄 서명’ 부스 발길 계엄사태 민주주의 위기 실감 “정치권, 국민 위한 국정운영을 현재에 흔들림 없는 결정 촉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장기화한 정치적 혼란에 지친 시민들 사이에서 일상 회복에 대한 염원이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대통령 파면을 통해 국정이 정상화되고, 보다 안정된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내비쳤다.

2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한켠의 ‘피소추인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광주시민 한 줄 서명’ 부스. 어린아이의 손을 잡은 부모, 점심을 마친 직장인, 지팡이를 짚은 노인까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이곳을 찾았다.

시민들은 저마다의 심경을 한 문장에 담아 조용히 적어 내려갔다. 서명 마지막 부분에는 거주 지역과 이름 또는 이니셜이 적혔고, 광주뿐만 아니라 나주와 화순 등 인근 지역 시민들의 이름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길을 지나던 이들은 한 문장씩 적으며 간절한 마음을 보냈으며, 걸음을 멈춰

박히 채워진 성명들을 한참 바라보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적힌 글귀를 가만히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이도, 지난 연말 계엄사태가 떠오르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는 이도 있었다.

‘국격을 추락시킨 대통령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성명을 남긴 정모(70)씨는 “12·3 계엄사태를 보며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실감했다. 권력 유지를 위해 군대까지 동원한 사람이 어떻게 나라의 아버지 격인 대통령 자리를 지킬 수 있겠냐”라며 “헌법재판소는 파면 선고를 통해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권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덕용(67)씨도 “탄핵 정국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면서 국민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 현재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정치적 파장은 불가피하겠지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파면이 최선”이라며 “끝없는 정쟁 속에서 시민들은 지쳐가고 있다. 파면 결정을 계기로 정치권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대학생들도 현재의 파면 결정을 통해 사회가 안정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호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주성(27)씨는 “당연히 탄핵될 것이라 믿는다. 현재 판결이 미뤄지는 동안 전국 곳곳에서 시

위가 이어지며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했다”며 “늦어진 만큼 현재가 흔들림 없는 결정을 내려 사회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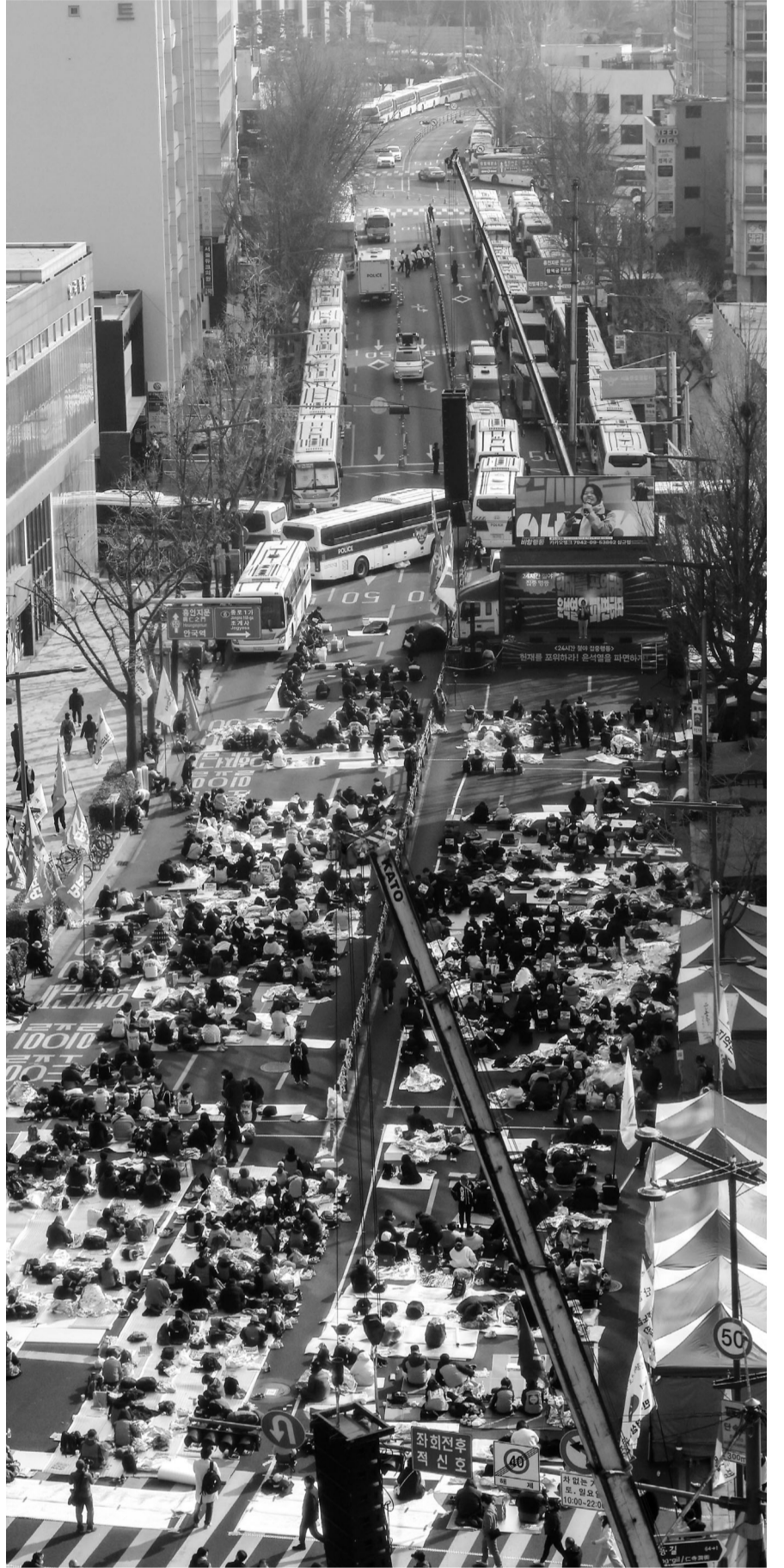
목포대학교에 재학 중인 백동진(23)씨는 “계엄사태 이후 사회 분위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물가는 오르고, 취업 시장도 얼어붙어 청년층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탄핵이 이뤄져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하루빨리 국가가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회사원들과 자영업자들은 오랜 침체에 빠진 국가와 지역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비쳤다.

직장인 이민규(32)씨는 “100일이 넘도록 선고가 미뤄지면서 답답함이 컸다.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청년층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며 “4일 현재의 결정이 대한민국이 안정과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최승룡(55)씨는 “탄핵 정국으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손님들의 씹뻐이가 줄고 매출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정치적 혼란이 해소돼야 경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파면 결정이 내려져야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경제도 회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2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24시간 철야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뉴스

## 전남대 교수 시국선언 “내란수괴 책임 물어야”

### 尹 파면 촉구...교수 301명 서명 “현재는 존재의 의미 증명하라”

전남대학교 교수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전남대학교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를 비롯한 전남대 교수들은 2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내 5·18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존재 의미를 증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12월 3일 시민들은 국회로 달려가 헌정질서 파괴를 막았다. 1980년 5월 광주항쟁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하는 위대한 순간이었다”며 “전 국민이 목격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은 자명하다.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준엄한 심판을 내리지 못하는 헌법재판소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이 거대한 저항에 나서서 파국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묻고,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는 헌법적 판결을 엄중

히 선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모두발언에 나선 한은미 민교협 전남대 분회장은 헌법재판소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환기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오늘은 우리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표명하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를 촉구하기 위한 자리”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국선언문 서명에는 전남대학교 교수 301명이 참여했다.

정승우 수습기자

**고퀄리티(4K)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 편집**

**드론타임 DRONE TIME**

스포츠행사/축제/산업현장/호텔/편선 학교/부동산광고/분양/지적도 선별특수촬영/생산시설/양식장 아파트/교회 웨딩/이벤트/(웹)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자본감소공고**

당 회사는 2025년 04월 01일 총주주의 서면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 100,000,000원 중 금 85,000,000원을 감소하여 금 15,0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 10,000원인 보통주식 10,000주 중 8,500주를 현재 각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 중 감자를 원하는 주수를 유상으로 양도받아 임의 소각하여 발행주식의 총수 10,000주를 1,5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1월 이내에 당사에 이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4월 03일  
주식회사 빵은진보화 (201111-0069595)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2 사내이사 지준세

**광고문의**

**팩스 062)519-0709**

**直通 062)519-0710**

**全南日報**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을 부르는 **직장인 스피치**

멋지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아버지 스피치**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강삼형 (40122-1\*\*\*\*) 2025. 2. 2 사망  
최후주소 : 전남 목포시 마파지로 92 (산정동)  
민법 제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5년 단 10152 상속한정승인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 2025. 3. 26  
◎ 청 구 인 : 1.강정수 2.강경화 3.강남림  
◎ 공고기간 : 2025. 4. 3. ~ 2025. 6. 3.  
◎ 신 고 처 : 광주 남구 서문대로812번길 4-8 105동 2802호 (주월동, 남구주월골드클래스아파트) 2025년 4월 3일

**자본감소공고**

본 회사는 2025. 04. 02. 임시주주총회에 의한 주주서면결의에 의하여 자본금의 액을 금150,000,000원을 금 50,000,000원으로 감소하기로 하고, 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15,000주를 보통주식 5,000주로 감소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주주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본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 04. 03.  
주식회사 연회건축사사무소  
사내이사 박중혁